

쓰레기 범벅 재활용품함 또 설치

광주시, 광산구에서 실패 판명난 사업 확대 추진 논란

광주시가 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했다가 폐기한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 정책'을 최근 대대적으로 추진해 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시가 2억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713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구매한 뒤 이를 설치하도록 각 구청에 통보했다.

각 구청에 배정된 물량은 ▲동구 70개 ▲서구 110개 ▲남구 80개 ▲북구 207개 ▲광산구 246개로, 현재 주택 가와 원룸촌 등지에 설치되고 있다. 이 분리수거함은 병용, 캔·고철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등 4가지로 나뉘 담을 수 있는 그물망 형태로 제작됐으며, 개당 가격은 20만원 가량이다.

시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면 저조한 주택가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재활용품 수거 방식은 지난해 광산구가 도입했다가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폐기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광산구는 총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13개 동에 개당 25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450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



광주시로부터 지급된 재활용품 수거함을 21일 광주시 서구 양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양동시장 입구에 설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은 재활용품이 배출되거나 분리수거함 주변이 불법투기된 일반쓰레기로 넘쳐나 이를 치우기 위해 하루 평균 100여명의 공공근로자가 투입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났다.

결국 광산구는 분리수거함 설치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께 분리수거함을 모두 치우고 집 앞에 재활용품을 대놓도록 하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했다. 나머지 4개 자치구 역시 분리수거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지금은 모두 문전수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 주택가 등이 또다시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분리수거함 관리를 위한 상시 인력 배치 등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시 관계자는 '분리수거함을 그물망 형태로 제작해 무엇을 넣는지 외부에서 볼 수 있고, 각 분리수거함마다 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관리자가 역할을 해 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액은 1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25억 6000만원에 비해서는 줄었다.

권의위 관계자는 '02-1588-9999', '02-736-0112', '02-393-9112' 등은 행과 경찰이 실제 사용하는 번호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만큼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110 폴센터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 전화 급증

피해금액은 줄어

"자녀가 납치됐거나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1일 지난해 '110 폴센터'에 접수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상담 전화 1만8229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자녀가 납치됐다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년도의 두배인 4.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피해 금

출했고, 광산구청은 세종고의 평준화 전환을 주제로 관심을 모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세종고가 '특수지(평준화 비적용)고교' 해제와 함께 평준화 고교 전환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종고는 전환 사유로 도심 확장에 따른 학생수 증가, 학교 정상화 기틀 마련을 꼽고 있다.

특히 같은 학군 내 고교 2곳이 최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로 전환되면서 다수 학생들이 원거리 공립고에 다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민 1만2000명은 전

환 신청 등의 서명서를 교육청에 제

출했고, 광산구청은 세종고의 평준화 전환을 주제로 관심을 모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세종고가 '특

수지(평준화 비적용)고교' 해제와 함께 평준화 고교 전환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종고는 전환 사유로 도심 확장에

따른 학생수 증가, 학교 정상화 기틀 마련을 꼽고 있다.

시 교육청은 조만간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접 학생, 학부모 여론, 통학 불편 여부, 교사와 시설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출했고, 광산구청은 세종고의 평준화

전환을 주제로 관심을 모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세종고가 '특

수지(평준화 비적용)고교' 해제와 함께 평준화 고교 전환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종고는 전환 사유로 도심 확장에

따른 학생수 증가, 학교 정상화

기틀 마련을 꼽고 있다.

시 교육청은 조만간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접 학생,

학부모 여론,

통학 불편 여부,

교사와 시설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휴나핫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 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휴나핫반신욕기는 웃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립건강(주)은 월,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든 광물질 30여 종(특허획득 제10-096707 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 그제조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 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상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휴나핫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 될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립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립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무원집

방법)을 훈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휴나핫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 한의원, 산후조리원, 복지원, 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한 인원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진 건강혁명이다.

또, 학교 졸속배정 논란

첨단지구 빛고을고 ... 학생 통학 불편

시내버스 노선 없는 경우도

은 신입생 384명(북구 199명·광산구 188명·기타 3명)의 통학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비아동과 첨단 일부 지역, 북구 거주 학생들은 학교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종(민주·광산 4) 광주시 의원에 따르면 내달 개교 예정인 첨단 2백지구에 있는 빛고을고등학교와 가장 근접한 시내버스 정류소는 학교에서 약 1km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더라도 15분 가량 걸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또한, 학교 근처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일과 10분, 첨단 30분, 첨단 193번으로 각각 20분, 11분, 130분의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빛고을고등학교에 배정받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1/13°C
목 포	맑음	-1/12°C
여 수	맑음	4/11°C
나 주	맑음	-4/14°C
완 도	맑음	1/13°C
구 래	맑음	-3/14°C
해 남	맑음	-3/13°C
장 흥	맑음	-3/13°C
순 천	맑음	1/13°C
영 광	맑음	-2/12°C
전 도	맑음	-1/13°C
전 주	맑음	-1/14°C
군 산	맑음	-2/12°C
남 원	맑음	-3/14°C
혹 산	맑음	3/9°C

<오전> 바다 풍향 풍속

서해 남부 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일바다

북동~동

1.0~2.0m

북동~동

2.0~3.0m

<오후> 바다 풍향 풍속

서해 남부 일바다

북동~동

0.5~0.5m

목포 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일바다

북동~동

0.5~1.5m

여수 일바다

북동~동

1.0~2.0m

◆주간날씨

날짜 23(수)

날씨 맑음

최저/최고 1/14